



3가지 산업금속과 투자 아이디어

1. 미국 주식과 채권(가격)의 동반 강세 종료

- 최근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는 Brexit 충격으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
- 그러나 미국 경제지표가 일관 된 호조를 보이면서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은 빠르게 회복 중.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상화 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금은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 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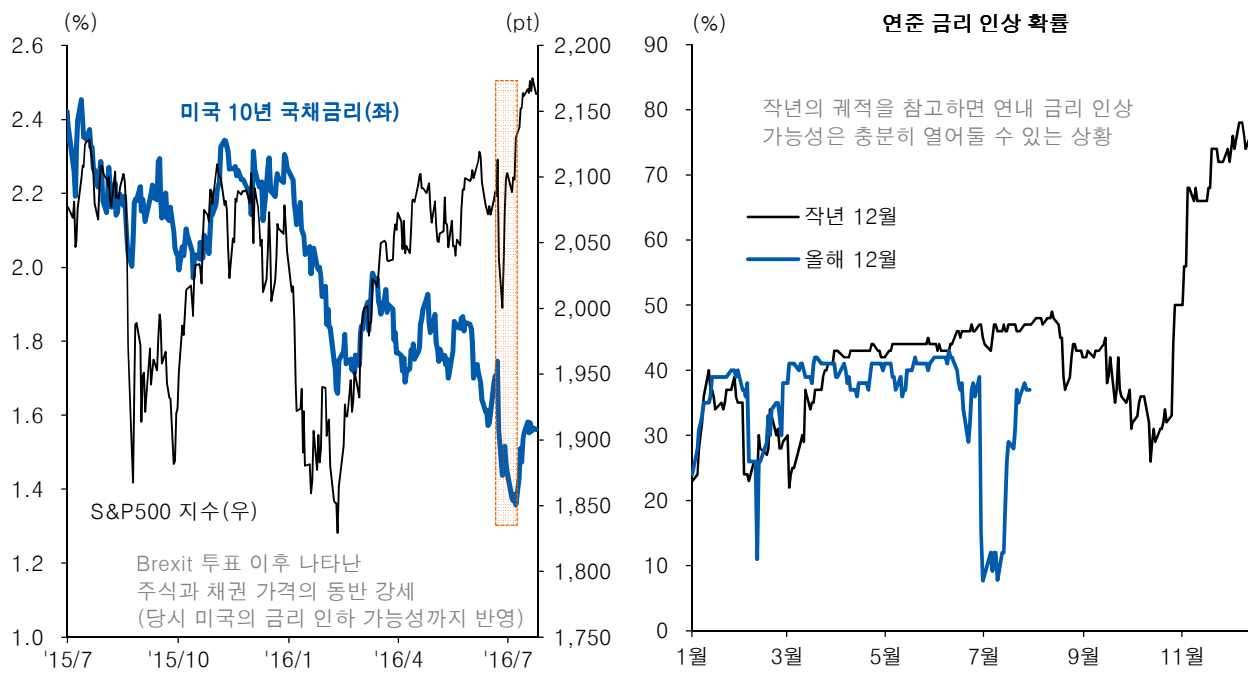
2. 철광석과 관련 원자재 가격 상승은 진행형

- 산업금속 가격은 올해 선별적인 강세를 기록 중. 아연과 니켈 가격 상승은 철강, 주석은 IT 섹터에 시사점 보유
- Brexit 충격 이후 아연, 니켈, 철광석 가격은 빠르게 상승 재개. 아연의 최대 수요는 '철강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아연도금, 니켈의 최대 수요는 '스테인레스 강철' 합금. 즉 철광석 및 관련 원자재의 상승 모멘텀 지속
- 금속/채광 업종의 12MF EPS는 가장 큰 폭 상승(전세계 67개 업종). 아르셀로미탈 주가는 7월 +26% 상승. 미국과 중국의 반덤핑 관세는 상대강도 측면에서 국내 철강주에 부담. 그러나 글로벌 철강주 상승 사이클은 진행형

3. 대만과 한국에 대한 순매수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반영

- 7월 신흥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작년 5월 이후 최대. 국가별로는 IT 섹터 비중이 높은 대만과 한국 최선호. 7월 KOSPI200 종목 중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 연초대비 수익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석의 최대 수요는 납땜. PC/휴대폰 등 전자제품 출하에 영향. 월요일 발표 된 한국의 6월 '전기 및 전자기기'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9.4% 증가(전체 수출 +3.9%)
- 글로벌 peer 국가와 기업, 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함께 참고하면 해당 업종들(철강, IT하드웨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

1. 미국 주식과 채권(가격)의 동반 강세 종료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연내 금리 인상 확률 상승. 주식과 채권 동반 강세 종료
- ▶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정상화는 채권→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계기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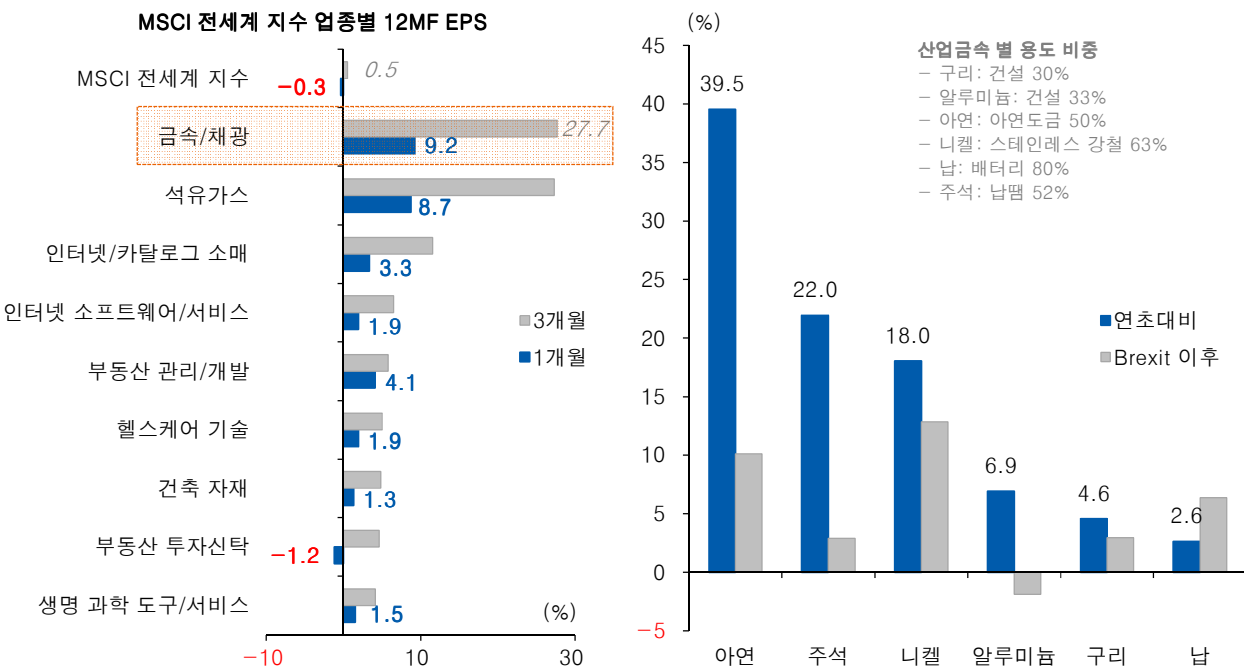
Brexit 투표 후 약 한달 간 주목했던 금융시장의 특징은 주식과 채권 가격의 동반 강세(각각 역대 최고치 경신, 미국)였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는 Brexit 충격으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미국은 여전히 최소 1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Brexit 이후 발표 된 첫 심리지표인 7월 미국 Markit 제조업 PMI는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를 기록(52.9pt, 컨센 51.5pt)했고, 미국 경제지표가 일관 된 호조를 보이면서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외부 충격(위안화 절하, Brexit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정상화 조짐이 나타나면 글로벌 투자자금은 방향성이 정해진 채권(금리 인상→가격 하락)에서 주식으로 이동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대 최고치라는 레벨 부담이 가중 된 미국 국채 금리는 최근 이미 상승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2. 철광석과 관련 원자재 가격 상승은 진행형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 6대 산업금속 가격은 차별화 진행. 철광석 및 관련 원자재(아연, 니켈) 강세
- ▶ 금속/채광 업종의 12MF EPS 빠르게 상향. 글로벌 철강주 상승 사이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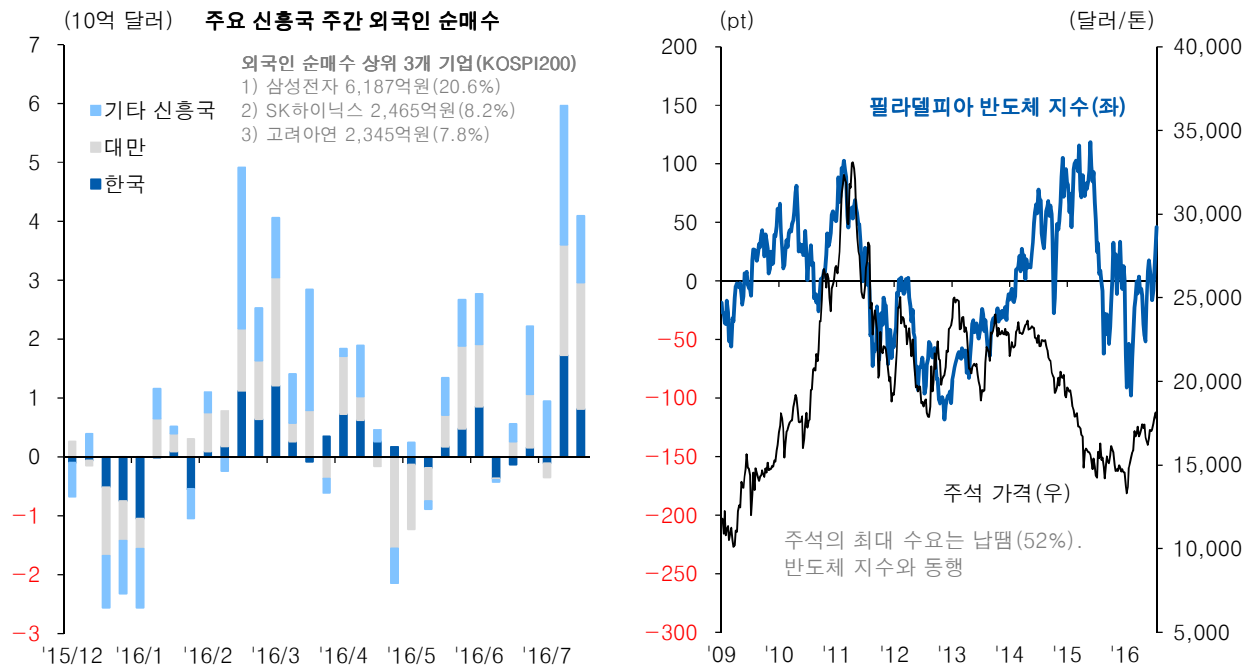
수 년간 부진했던 산업금속 가격은 올해 선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ME 산업금속 지수는 연초대비 +9.5% 상승했는데, 특히 아연(+40%)과 주석(+22%), 니켈(+18%)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아연과 니켈은 철강, 주석은 IT 섹터에 시사점이 있습니다.

아연과 니켈은 철광석과 더불어 Brexit 충격을 단기간 반영 후 빠르게 상승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아연의 최대 수요는 ‘철강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아연도금(50% 비중), 니켈의 최대 수요는 ‘스테인레스 강철’ 합금(63%)입니다.(철광석 및 관련 원자재 모멘텀 지속)

금속/채광 업종은 MSCI 전세계 지수의 67개 업종 중 12MF EPS가 가장 크게 상향(1개월/3개월)되고 있고, 세계 최대 철강 기업인 아르셀로미탈(매출 기준)의 7월 주가 상승률은 +26%에 달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담은 분명 상대강도 측면에서 국내 철강주에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중국 구조조정으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철강주의 상승 사이클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판단입니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3. 대만과 한국에 대한 강한 순매수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반영



주: 기타 신흥국은 인도, 브라질 등 6개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기술품을 제거한 값.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 외국인의 대 신흥국 투자 작년 5월 이후 최대치. 대만과 한국 선호(IT 비중 높은 국가)
- ▶ KOSPI200 중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7월 신흥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작년 5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과 한국에 대한 순매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는데, 공통 점은 IT 섹터의 비중이 높은 국가라는 점입니다.(대만 59%, 한국 37%, 신흥국 23%)

실제로 KOSPI200 중 7월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6,187억원, 전체 순매수 금액의 20.6%), 2위는 SK 하이닉스(2,465억원, 8.2%)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산업금속은 주석입니다. 연초대비 수익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석의 최대 수요는 납땜(52%)으로, PC/휴대폰 등 전자제품 출하에 영향을 받습니다.(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동행)

월요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참고하면 전기 및 전자기 수출물량이 전년대비 +9.4% 증가(전체 수출은 +3.9%)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글로벌 peer 국가와 기업, 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함께 참고하면 해당 업종들(철강, IT하드웨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